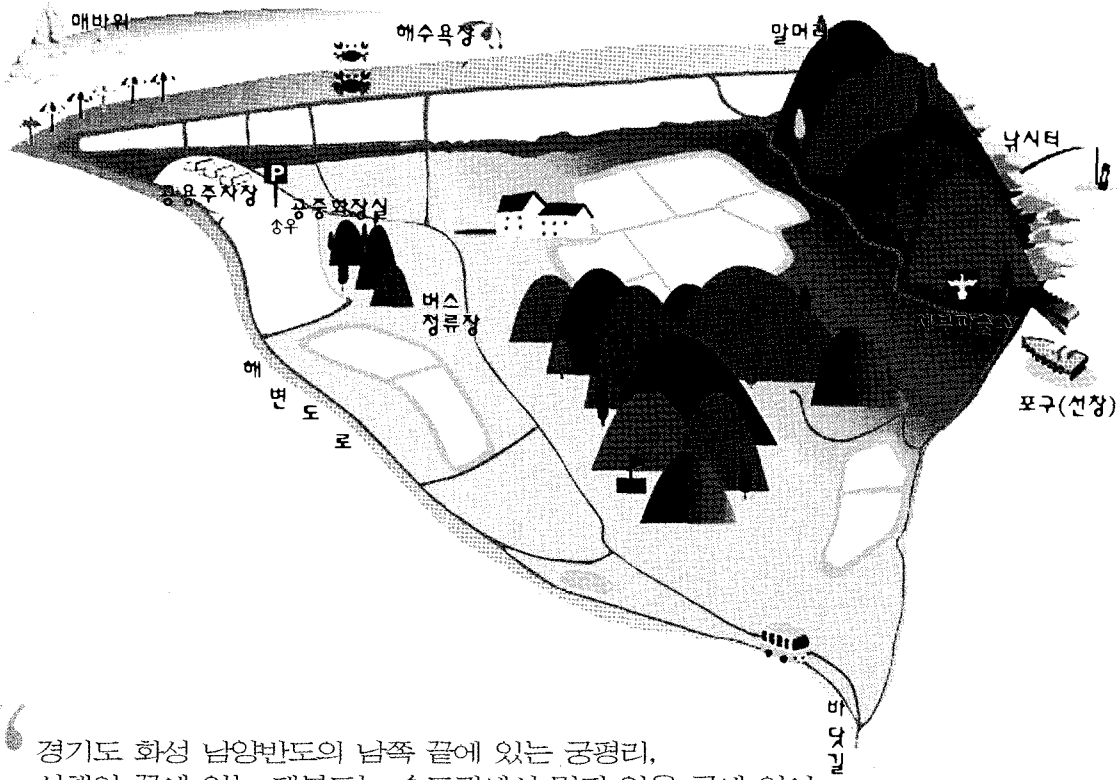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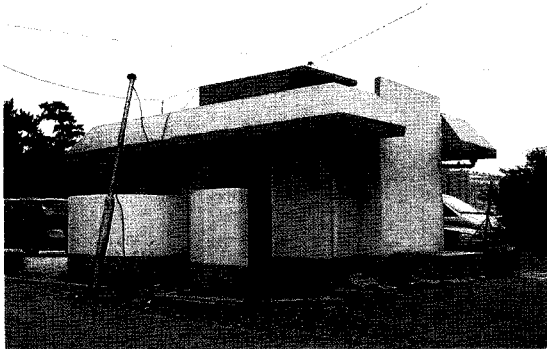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팔경'

# 서해안 해송이 아름다운 궁평리,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 경기도 화성 남양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궁평리, 서해안 끝에 있는 제부도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위락시설과 깨끗한 송림, 넓은 해수욕장 등이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한 곳이다. 특히,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바다길이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글. 편집부



공평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전경



## 경기도 화성 남양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공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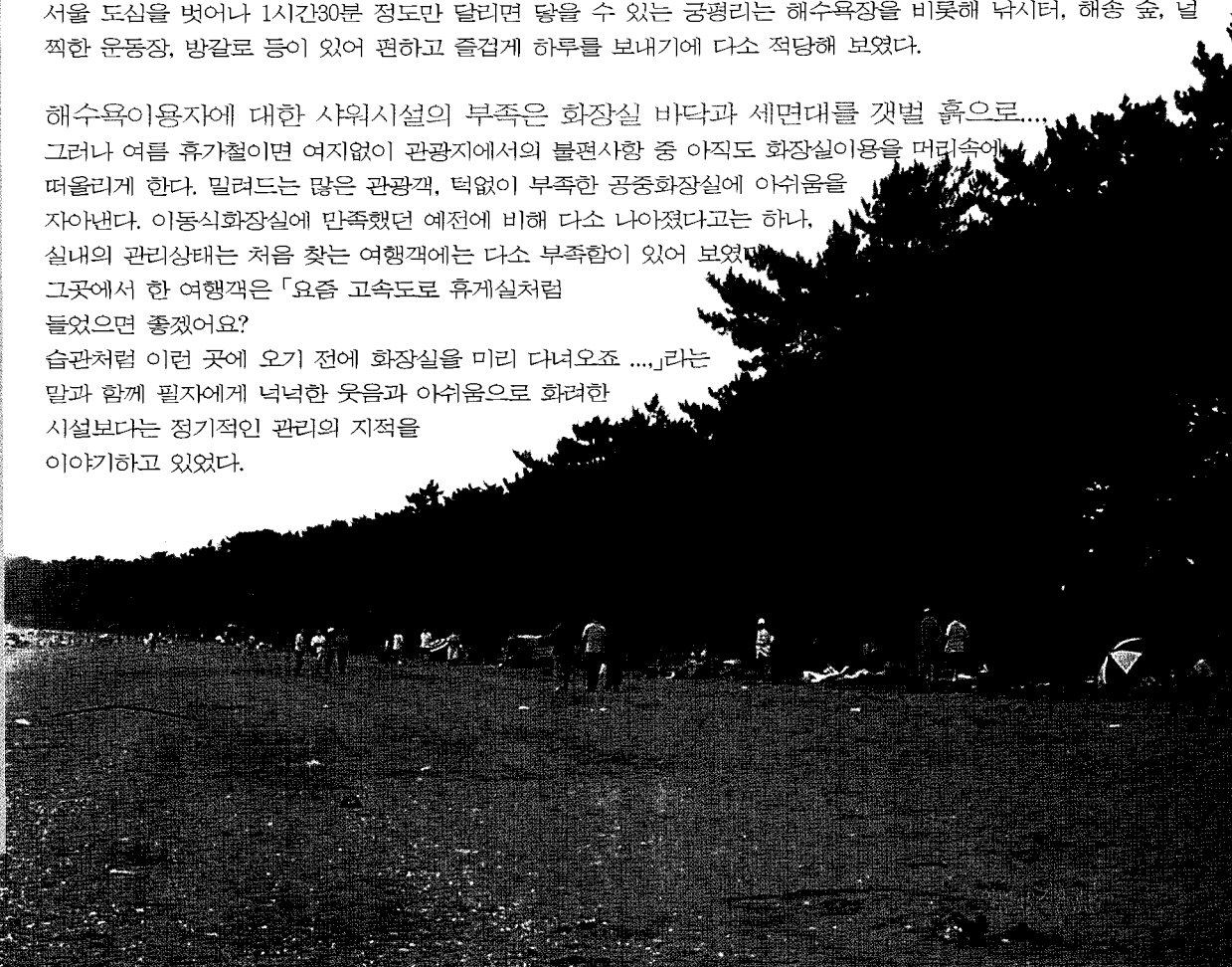
서해의 아늑한 바닷가를 굽어보고 있는 공평리는 근래에 들어와 관광어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이다. 남양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이 곳은 옛날 궁에서 관리한 땅이 많아 '궁들', 혹은 '궁평'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1시간30분 정도만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공평리는 해수욕장을 비롯해 낚시터, 해송 숲, 널찍한 운동장, 방갈로 등이 있어 편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기에 다소 적당해 보였다.

해수욕이용자에 대한 샤워시설의 부족은 화장실 바다과 세면대를 갯벌 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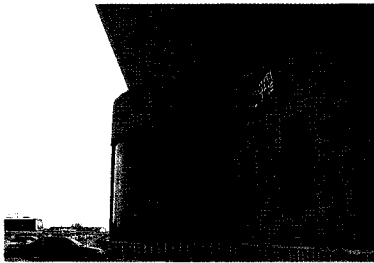
그러나 여름 휴가철이면 여지없이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 중 아직도 화장실이용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한다. 밀려드는 많은 관광객, 턱없이 부족한 공중화장실에 아쉬움을 자아낸다. 이동식화장실에 만족했던 예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실내의 관리상태는 처음 찾는 여행객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였다.

그곳에서 한 여행객은 「요즘 고속도로 휴게실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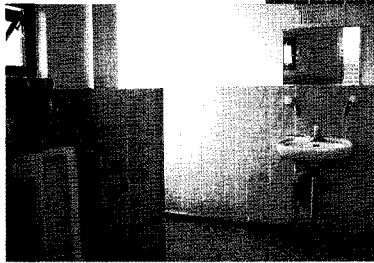
습관처럼 이런 곳에 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죠 ....」라는 말과 함께 필자에게 넉넉한 웃음과 아쉬움으로 화려한 시설보다는 정기적인 관리의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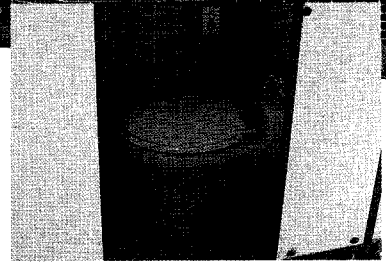
제주도 공중화장실 외부 전경



화장실 환기창



화장실 실내



수세식 양변기

## 아침나절에 물길이가 열리면 육지로 변하는 제주도

오후 6시경이면 물길이가 달쳐 섬으로 변하는 재미있는 곳이다. 바닷물이 갈라지면 2.3km에 달하는 시멘트 포장 길이 나타나고 그 사이를 여유 있게 건너면서 제주도 나들이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섬으로 들어서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을 택하면 그림 같은 해안선과 기암괴석, 넓게 펼쳐지는 풀밭이 아름답다. 오른쪽 길을 택하면 광어, 우럭, 꽃게 등의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포구를 만날 수 있다.

섬을 싸고도는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마주치는 곳에서 1.4km 좁은 길을 달리면 매바위의 위용을 만날 수 있다. 섬의 서쪽에는 고운 모래밭이 있고 수심도 얇아 간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하루평균 만오천명이 다녀간다는 제주도, 그러나 공중화장실은 고작 한곳 뿐...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아담한 작은 집. 바로! 공중화장실이었다.

그곳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은 시설부족과 관리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섬이라는 특성상 자연지하수 및 완전한 정화조시설을 할 수 없다는 한 시설관리자는, 지금으로서는 시설을 늘리는 문제보다는 원천적인 오폐수 정화시설의 시급한 개선을 꼽고 있었다. 최근 모 방송 퀴즈프로그램에서 서해에서 가장 지저분한 섬으로 표현됐다며 최근 월드컵 이후, 늘어가는 외국관광객을 볼 때 부끄러움 마저 느끼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성숙된 시민의식의 문제도 아쉬움을 낳고 있었다.

하루에 수십톤씩 늘어만가는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생활·환경쓰레기, 급수시설과 환기시설의 부족으로 냄새가 만연한 공중화장실, 천혜의 해상자원이라는 말을 정말 무색하게 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번 기행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계도의 아쉬움을 또한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관광객의 철저한 주인 의식과 다양한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웃으며 다시 찾을 수 있는 명소로서 향기 있는 아름다운 작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제주도 즐기기

제주도의 장점은 손쉽게 갯벌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갯벌체험으로 잡은 것들을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갯벌 생물들은 바지락, 동족, 가무락, 땡가리, 말미잘, 칠게, 납작게, 밤게, 민챙이, 민꽃게, 서해 비단고둥 등이다.

### 굴파기

제주도 나들이의 즐거움 중 또 하나는 물이 빠진 바위틈에서 짝따름한 굴(石花)을 캐먹는다. 썰물 때가 되면 해수욕장 왼쪽의 매바위 주변과 해수욕장 오른쪽 해안은 굴밭으로 변하여 굴을 따고 있는 젊은 연인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제부의 굴은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기로 유명해서 무분별한 채취로 손상을 입곤 해, 마을 어촌계에서 지나친 굴채취를 금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따먹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

### 조개, 바지락 캐기

제주도를 유람이 길은 풍해이든 덩리, 물이 빠진 갯벌에 나가 바지락, 조개, 바지락, 조개, 바지락 캐는 기쁨이 있다. 조개의 터들까지 갈 수 있어 흠뻑 조개 육을 캐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이렇게 굴은 조개는 바지락 캐는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개로 캐는 것들 중에서도 바지락 캐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바지락 캐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바지락 캐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